

경제

■ '냉온탕' 금융시장 ... 가시지 않는 금융불안

코스피 변동 폭 100P '아찔' 환율도 급등 ... '백약이 무효'

글로벌 금융악재로 국내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전날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가 '롤러코스트' 환율 급등 - 공포감 여전>=28일 코스피지수는 100포인트를 오르내린 끝에 이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하루의 주가 급등 만으로 '백약(公藥)'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4% 가까이 빠지며 900선이 위태롭고, 코스닥지수는 5% 넘게 폭락해 사상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는 듯했다. 하지만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내며 코스피지수를 999.16으로 5.57% 끌어올렸다. 코스닥지수 역시 6일 만에 반등했다. 현재로서는 기관 투자자가 증시의 구원투수를 담당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마운드를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글로벌 주가 폭락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42%, 나스닥 종합지수는 2.97% 떨어졌으며, 프랑크 CAC40 지수(-3.96%), 영국 FTSE100 지수(-0.8%)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외환시장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년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67.80원으로 올라섰다. 2천800억원 가량이 이르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달러화 수요로 이어진 것이 환율 급등의 주된 요인이 됐다. 경기 침체의 우려로 국제 유가와 동,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추락하는 것도 실물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하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가 동유럽으로 번지고 있다. <"비정상적 상황 - 불안 당분간 지속">=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처방이 효과를 낼 때까지는 불안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기는 힘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 실물경기의 침체 우려, 신항시장국의 외환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미국의 경우 초단기 금융시장의 경색이 완화되는 양상"이라며 "리보 금리(런던 은행간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이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물경제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페라리 430스쿠데리아 국내 상륙 28일 서울 강남구 페라리 전시장에서 F1 챔피언 미하엘 슈마허가 초기 개발 단계부터 테스트 드라이빙까지 참여한 페라리 430 스쿠데리아(Scuderia)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페라리 430 스쿠데리아는 4.3리터, 8,500rpm, 510마력, V8엔진을 탑재해 정지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시간은 3.6초다. /연합뉴스

원자재가 '추락'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 기업 투자 위축 S&P GSCI 지수 이달 들어 33% 폭락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과 소비수요 급감 등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원자재 수입국이나 자동차 운전자 등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하락의 원인이 경기 침체에 있는 데다 극심한 생산활동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24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GSCI 지수가 이달 들어 33%나 폭락해 지난 1970년 이후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주간으로 4주 연속 하락했고 동(銅)은 3년래 최저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나마 안전자산으로 선호돼 매수세가 유입됐던 금도 '현금이 왕'이라는 인식에 따라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7분 현재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배럴WTI(WTI)원유는 전 주 대비 증가보다 86센트(1.3%) 떨어진 배럴당 63.29달러에 거래됐다. WTI 가격은 이날 한때 배럴당 61.30달러까지 떨어져 작년 5월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3개월물 물 값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전주말보다 129달러(3.2%) 떨어진 t당 3천659달러에 거래됐고 알루미늄 가격도 1.6% 하락했다. 니켈도 5%, 납은 6% 하락했다. 6개 금속으로 이뤄진 LME지수는 지난주에만 15% 이상 하락했고 주요 예측기관들은 내년 원자재 수요와 가격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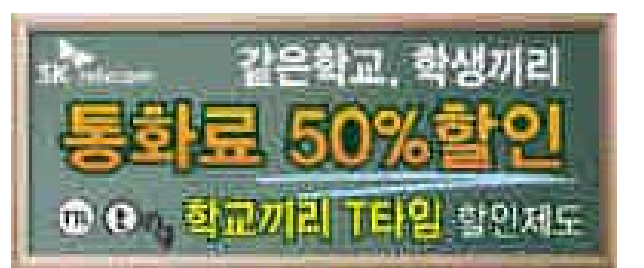
2011년까지 3천개 키운다

코트라 '파워 3000' 프로그램 시행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까지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3천 개를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코트라는 마련한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르면 코트라는 최근 수출 선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견 기업을 매년 1천 개 이상씩 신규로 발굴해 1년간 집중 지원하는 '파워 3000'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분야별 지원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코트라의 이런 방침은 기업별 수출 비중에서 대기업이 68%, 중소기업이 32%로 대기업 편중이 심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수출 실적 10만 달러 안팎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품소재, 일류상품, 지식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에 '파워 3000'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3년 안에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현지 진출을 원하면 코트라 인프라를 제공하며 코트라 보증 브랜드인 'Approved by KORTA' 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의 남북 철차, 해외 핵심기업과 발주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 고급 정보도 지원해 수출 편의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는 '스타트 1000'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업체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해 수출 잠재력이 있는 우량 내수기업을 3년간 1천 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3회 이상 하자' 공산품 환불

공산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규정을 강화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보호 기준이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산품의 동일하자자 4회 이상 발생 경우 교환 또는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수기간도 현재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 소비자가 온라인계인 아이템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으며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행업체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서비스를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체 이용요금 10%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품기와 흡수터, 비데, 안마의자, DVD플레이어 등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신설했고 정수기 임대업자가 필터교체 등 서비스를 게을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연합뉴스



5대 암 검진 비용 본인 부담 2010년부터 절반으로 준다

정부가 실시하는 5대 암 검진 비용의 본인 부담액이 2010년부터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노인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들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5대 암 검진을 받을 때 전체 비용의 20%(1만3천~3만2천원)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10%(7천~1만6천원)만 내면 된다. 다만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입자들은 현재대로 검진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다. 5대 암이란 정부 재정으로 건보 가입자들에게 대한 검진 비용을 지원 하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을 말한다. 위암과 유방암(여성) 검진은 만 4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30세 이상 여성에 대해 2년마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대해 매년, 간암 검진은 40세 이상 B형·C형 간염 환자와 간경화증 환자에 한해 6개월마다 실시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검진 차를 이용해 사무실과 주거 지역을 연결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 일반 건강검진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 다. /연합뉴스

금융시장 안정·불황 극복 정부 200조 '금융지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불황 극복을 위해 투입했거나 내년부터 지원 또는 공급기로 한 금액이 모두 20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한국은행과 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공급되거나 지원되는 원화 금액은 44조원에 이르며 해외 차입에 대한 지급 보증을 포함한 달러 지원규모는 151조원으로 계산됐다. 원화와 달러 지원규모를 합하면 모두 195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인 220조원의 89%에 이른다. 앞으로 정부와 한은은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은의 지원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4일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2조원을 공급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증권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

원·엔 환율 100엔=1600원 사상 최고치 對日 무역적자 '눈덩이'

핵심 부품·소재 수입업체 비용 증가 불가피

원·엔 환율이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벌이면서 100엔당 1,600원에 다가갔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엔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초강세를 보이는 데 반해 원화는 약세 통화인 달러화에 대해서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원·엔 환율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원·엔 환율 상승은 매일 무역적자를 더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들이 상당부분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수입 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원·엔 환율 연일 사상 최고치 = 28일 외환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장중 100엔당 1,600원을 돌파한 뒤 1,536.96엔으로 마감했다. 전날에는 1991년 원·엔 고시환율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인 1,546.09엔을 기록하기도 했다. 원·엔 환율은 8월 초 100엔당 930원대에서 급등해 이날 8월 1,400원에 근접했다. 이달 중순 1,170원대로 급락하기도 했지만 지난주 급등세를 재개하면서 1,500원을 넘어섰고, 1,600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반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원·엔 환율 급등

을 가져오고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대외 약세의 영향으로 원·엔 환율 상승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일 무역역조 심화 = 엔화 강세는 당장 대일 무역역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대일 무역적자 누계는 263억 2천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43억 3천400만 달러나 급증했다. 올해 연간으로는 적자가 300억 달러를 크게 웃돌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대일 무역적자 증가는 기술력이 취약한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일 적자도 커지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당장 반도체, LCD, 제조장비 등 일본으로부터 부품 수입이 불가피한 업종은 원·엔 환율의 상승으로 수입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엔화 강세로 일본의 수출 전진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일본 경기가 가파르게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투명 스마트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LG전자 등이 공동개발한 '투명 스마트창'이 28일 시연을 통해 공개됐다. '투명 스마트창'은 창문을 TV로 이용하고, 자동차 앞 유리 속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Name, Job Category,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jobs like construction, IT, and manufacturing.

<광주광역시 512-6210 제공>